

5만급 홍콩 크루즈선, 올해 여수 온다

‘아쿠아리우스’, 4월·6월 두차례 입항...여객 1511명·승무원 756명

개별 관광객으로 여수·순천 등 방문예정...이달 중 선사 측 실사단 파견

5만톤급 홍콩 크루즈 선박인 ‘아쿠아리우스(Aquarius)’가 오는 4월과 6월 두 차례 여수에 입항한다.

해양수산부는 ‘스타 크루즈 선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올 상반기 5만톤급 크루즈 ‘아쿠아리우스’호를 기동-여수 항로에 투입하는 것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스타 크루즈 선사는 홍콩에 본사를 두고 홍콩, 대만 등을 모항으로 1993년부터 운영해온 아시아 대표 크루즈 선사로서, 그간 동남아 항로 중심으로 운영해 왔다.

현재 5~7만 톤급 크루즈 4척을 운항 중이며, 2020년 투입을 목표로 20만 톤급(승객 5000명 탑승 가능) 크루즈 2척을 추가 건조하는 등 사업법위를 확장해 가고 있다.

올해 기동-여수 항로에 투입되는 ‘아쿠아리우스’ 선박은 여객 1511명,



승무원 756명이 탑승하는 대형 크루즈다.

오는 4월과 6월 대만 기동항을 출발해 여수항에 입항해 여수·순천지역을 둘러보고 일본 나가사키

를 거쳐 기동항으로 돌아가는 5박 6일 일정으로 운항한다.

승무원을 포함한 2000여 명은 단체 승객이 아닌 개별 관광객으로, 여수 해상케이블카 및 레일바이크

체험, 순천 낙안읍성과 순천민정원 관람 등을 즐길 예정이다.

저녁에는 여수 향토 음식을 즐긴 후 여수바람회장에서 박람회장의 명물인 빅오쇼를 관람하는 시간도 가진다.

해수부는 첫 항해에 앞서 여수항 입항여건과 여수·순천 관광지 등을 직접 둘러볼 수 있도록 선사 관계자가 여수에 방문해 출 것을 요청했다. 선사 측은 1월 중 실사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스타 크루즈 선사는 올 상반기 2차례 입항 성과가 좋을 경우 입항 규모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임기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그간 추진해 왔던 크루즈 시장 다변화 노력이 하나씩 결실을 맺고 있다”며 “올해에도 대만, 홍콩, 일본 등 해외에서의 포트 세일즈 행사를 적극 추진해 해외 크루즈 선박의 입항 유치에 노력하는 한편, 관련 지자체와 함께 기항지의 매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좋은 사골 감별법은?

농촌진흥청, 붉은색 얼룩 선명해야

사골국은 추운 겨울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보양식이다.

농촌진흥청은 2일 새해를 맞아 사골국의 영양성분에서 사골국을 끓이고 보관하는 방법 등 소비자들의 궁금증에 대한 정보를 소개했다.

▲곰탕과 사골국은 어떻게 다른가요

한우로 만드는 탕의 종류는 다양하다. 곰탕은 주로 한우 양지와 사태 등 고기를 이용해 끓이고 설렁탕은 사골을 이용한다. 우족탕은 한우의 다리뼈(족)를, 꼬리곰탕은 꼬리뼈를 이용해 만든다.

▲좋은 사골을 눈으로 구별할 수 있나요

사골 단면에 붉은 색 얼룩이 선명하고, 젤라틴성 기질에 콜라겐 섬유가 결합된 조직인 연골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좋은 사골이다. 석회화가 진행되는 골화가 덜 된 것일수록 뼈와 골수 사이의 붉은색 경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집에서 끓일 때 몇 번 정도 우려내는 것이 좋을까요

국립축산과학원이 사골을 우려내는 횟수별로 국물의 영양 성분과 맛을 분석한 결과, 1회 6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3번 정도 우려내는 것이 맛이나 영양적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4번 이상 끓일 경우에는 연골 조직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콘드로이틴황산과 칼슘 함량이 크게 줄고, 탁도(흐린 정도)와 점도(끈끈한 정도)도 낮아져 국물 맛이 떨어진다.

▲냉장, 냉동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사골국은 떡국이나 민트국 등 다양한 요리에 이용할 수 있는데, 냉동고에 1회 분량으로 담아 보관하면 약 한 달 동안 두고 먹어도 괜찮다. 끓인 용기째 상온 또는 냉장 보관하게 되면 미생물 오염에 의해 상할 수 있다. 해동 또한 미생물 오염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기에 넣어 냉장실에서 녹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체중 조절 중인데 사골국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끓인 사골국을 식힌 뒤에 떠 있는 지방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데 2~3차례 지방을 걷어내면 사골국에 들어있는 지방함량이 3%에서 약 1% 이하로 낮아진다. 지방을 걷어낸 사골국의 칼로리와 성분을 분석한 결과, 칼로리는 100ml당 약 47kcal로(우유 100ml 기준 61kcal) 비교적 낮은 편이었으며, 콜라겐과 콘드로이틴황산,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철분 등 각종 무기질이 고루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골국이 피부에 좋다는데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사골국 100ml당 콜라겐과 콘드로이틴황산 함량은 약 43.8mg과 106mg이다. 국 한 그릇(250ml 기준)을 먹을 경우 약 110ml과 265g 정도의 콜라겐과 콘드로이틴황산을 섭취할 수 있다. 콜라겐과 콘드로이틴황산은 피부 탄력과 뼈의 성장, 골절 회복, 골다공증 방지 등에 도움이 돼 여성뿐 아니라, 성장기 어린이, 노약자 모두에게 좋다.

김진형 농진청 축산물이용과 연구관은 “좋은 한우 사골을 골라 사골국을 끓이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한다면 유난히 추운 겨울을 든든한 보양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스

20~30대 연말 소비코드

‘자기계발’ 지고 ‘자기만족’ 떴다

티몬은 최근 2개월 간 매출을 분석한 결과 20~30대의 연말 소비코드가 ‘자기계발’에서 ‘자기만족’으로 이동했다고 2일 밝혔다.

티몬에 따르면 연말연초의 새해 결심 상품의 매출은 소폭 상승하거나 하락했다. 대표적인 상품이 헬스 보충제와 실내운동기구 등 다이어트 상품군이다. 2017년 11월1일부터 12월26일까지 헬스보충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p 떨어졌다. 아령 등 홈피트니스를 위한 실내운동기구 역시 2030대 매출이 41%p 떨어졌다.

‘자기계발형’ 상품은 ‘자기만족형’ 상품에 자리를 내줬다. 실제 게임과 아이돌굿즈, 여행 등 자기만족 상품군의 매출이 증가했다. 2017년 연말 보드게임 및 RC가 20대 매출은 342%, 30대는 233% 상승했다.

‘생활 필수품’이 아니라 소품과 공감,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감정 필수품’에 몰두하는 경향도 주목할 만하다. 일상을 즐거움으로 주는 방탄소년단과 워너원은 물론 잭스키스 등의 신구(新舊) 아이돌을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여는 2030대가 많아졌다.

이 때문에 좋아하는 분야에 심취해 이와 관련한 것을 모으거나 찾아보는 행위인 ‘덕질’ 관련 매출은 급상승하고 있다. 20대 아이돌굿즈 매출은 965%, 30대 매출은 442% 상승했다. 12월에 판매한 워너원 교통카드 역시 2주만에 4억원 넘게 판매됐다. 아이돌과 감정적인 연대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상품들은 올 한 해에도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행의 인기도 지속되고 있다. 해외의 자유여행을 위해 구입하는 해외 현지 입장권, 데이투어 매출 역시 20대에서 209%, 30대에서 217% 상승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즐거운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소비 패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재영 티몬 최고전략책임자(CSO)는 “2030대를 중심으로 ‘열심히 보던 ‘즐거움’ 삶 추구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며 “게임과 여행은 물론 자신과 감정적인 교감을 불러일으키는 아이돌 굿즈까지, 올해도 자신의 만족감을 중시하는 삶의 태도가 소비 패턴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11월 온라인쇼핑 사상 첫 ‘7조 돌파’

전년比 21.7%↑...모바일쇼핑 거래액 33.7% 급증

지난해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처음으로 7조원을 넘어섰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7조5516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7% 증가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7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월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16년 11월(6조2073억원) 6조원을 돌파한 뒤 1년 만에 7조원에 진입했다.

전체 소비에서 온라인쇼핑이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월 전체 소매판매액은 36조4849억원으로, 이 중 온라인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7%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20.0%를 기록한 뒤 가장 높은 수치다.

온라인쇼핑몰들이 대규모 할인 행사에 들어가면서 이용객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손은라 통계청 서비사업담당과장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등 해외에서 대규모 할인행사가 벌어졌는데, 국내

쇼핑몰들도 고객을 뺏기지 않으려 대규모 할인행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평년보다 낮은 기온으로 인해 방한가전 거래가 증가하고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로 관련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가정간편식의 호황도 거래액 증가에 일조했다.

상품군별 거래액을 보면, 가전·전자·통신기기 온라인쇼핑은 전년 동월 대비 34.4% 증가했고 음·식료품도 34.4% 늘었다. 아울러 애완동물용품이 무려 83.3%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체 거래액 대비 상품군별 비중은 여행 및 예약서비스가 13.8%로 가장 높았다.

한편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4조7344억원으로 전년 대비 33.7% 증가했다.

모바일쇼핑이 온라인쇼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7%로 1년전과 비교해 5.6%포인트나 상승했다.



지역광판·미케팅·정리·발행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